



Not Rated

주가(6/25): 23,850원

시가총액: 16,135억원

전기전자/디스플레이

Analyst 김소원

sowonkim@kiwoom.com

RA 조재원

jwon2004@kiwoom.com

Stock Data

KOSDAQ (6/25)		841.99pt	
52 주 주가동향	최고가	최저가	
최고/최저가 대비	49,700원	23,250원	
등락률	-52.0%	2.6%	
수익률	절대	상대	
	1M	-21.9%	-22.1%
	6M	-49.2%	-48.4%
	1Y	N/A	N/A

Company Data

발행주식수	8,012 천주
일평균거래량(3M)	481천주
외국인 지분율	0.0%
배당수익률(2024E)	0.1%
BPS(2024E)	2,802원
주요 주주	LS전선 43.5%

투자지표

(억 원, IFRS 연결)	2022	2023	2024E	2025E
매출액	1,620	1,369	1,513	1,897
영업이익	145	136	141	221
EBITDA	193	191	233	391
세전이익	107	152	147	235
순이익	84	122	115	184
지배주주지분순이익	84	122	114	183
EPS(원)	164	214	168	270
증감률(% YoY)	-21.5	30.1	-21.2	60.2
PER(배)	0.0	207.4	141.6	88.4
PBR(배)	0.00	16.62	8.49	7.87
EV/EBITDA(배)		153.4	69.1	40.6
영업이익률(%)	9.0	9.9	9.3	11.6
ROE(%)	9.6	8.7	6.2	9.2
순차입금비율(%)	-23.8	-45.2	-13.3	-20.3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Price Trend



LS머트리얼즈 (417200)

전기차가 끌고, 풍력이 밀고



울트라커패시터와 알루미늄 부품을 제조한다. 울트라커패시터 사업부는 북미, 유럽 지역의 풍력발전 설치량 확대와 전력 그리드 등 수요처 다각화에 따른 성장을 기대한다. 더불어 UC 대형화 및 모듈화를 통해 ASP가 상승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알루미늄 사업부는 전기차용 부품 등으로의 품목 다변화와 전선 산업 호황기 진입에 따른 수혜를 기대한다.

>>> 고성장이 기대되는 제품 라인업

울트라커패시터(이하 UC)는 배터리보다 제품 수명이 길고 충방전 가능 횟수가 많아, 유지보수 및 교체 빈도를 줄여준다는 장점을 갖는다. 주로 배터리 부하를 완화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며, 일부 영역에서는 배터리를 대체해 나가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고성장이 기대되는 수요처로는 신재생에너지(풍력)와 전력 그리드 분야를 꼽을 수 있다. 현재 동사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량 대형 셀, 모듈 제품 라인업을 확대 중이며,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전망한다.

알루미늄 사업부는 전기차용 제품 라인업 확대와 전선 산업 호황기 진입에 따른 수혜를 기대한다.

>>> 실적 전망 및 사업부별 기대 요인

2024년 매출액 1,513억원(YoY +10.5%), 영업이익 141억원(YoY +4%, OPM 9.3%)을 전망한다. 1H24까지는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과 UC 유통 채널 재고 등에 따른 실적 부진을 예상한다. 올해 실적 기대 요인으로는 1)UC 대형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2)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회복을 주목한다. 현재 주요 고객사향 고용량 UC 제품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을 통해 2H24부터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2025년 매출액 1,897억원(YoY +25.4%), 영업이익 221억원(YoY +56.8%, OPM 11.7%)을 전망한다. 25년에는 울트라커패시터(YoY +23%)와 알루미늄 사업부(YoY +29%)의 고른 성장이 기대되며, 주요 기대 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럽, 북미 지역의 풍력발전 설치량이 크게 증가(각각 YoY+31%, +57%)함에 따라, UC 매출의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 더불어, 전력 그리드향 신제품 등 UC 수요처 다변화 역시 기대되는 요인이다. 해당 제품은 모듈들을 결합한 시스템 형태로도 공급할 예정이기에, 매출 규모와 수익성 모두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알루미늄 사업부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변화는 HAIMK(오스트리아 HAI와 설립한 JV)의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매출 발생 시점은 1H25로 예상되며, 현대차그룹향 EV용 알루미늄 부품을 독점 공급할 것으로 기대한다. 초기에는 럭셔리 브랜드 모델에 먼저 탑재된 이후 볼륨 모델로 채택이 확대되며, 향후 관련 매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25년에도 전선 산업 호황에 따른 수혜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 판단한다.

기업 개요

동사는 울트라커패시터(이하 UC)와 알루미늄 소재, 부품을 제조한다. UC는 신재생에너지(풍력 발전), 운송 및 물류(자동차, AGV), 기타 산업(무정전전원공급장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알루미늄 사업은 100% 자회사인 LS알스코가 보유한 알루미늄 압출 및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가전, 전선 등 다수의 산업들로 제품을 공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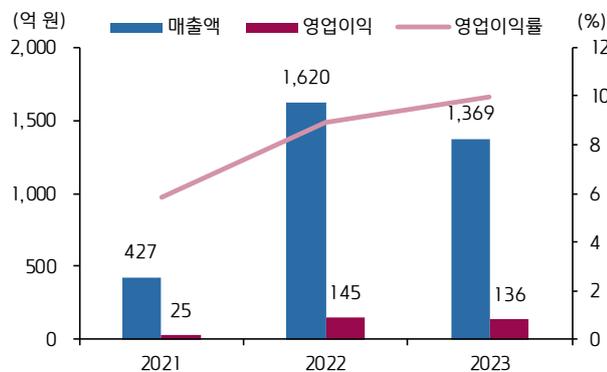
동사의 제품들은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쓰이는 범용 소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장점을 갖게 되나, 특정 산업군 하나가 전사 실적에 미치는 수혜 강도는 다소 낮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전력 인프라 등 고성장이 기대되는 전방 산업과 함께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2023년 실적

2023년 매출액 1,369억원(YoY -15.5%), 영업이익 136억원(YoY -6.2%)을 기록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사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는 점이다('22년 8.9%→'23년 9.9%). 이는 자동차용 PA12코팅튜브와 같은 고부가 제품 공급 확대에 따른 알루미늄 사업부 영업이익률 개선에 기인한 결과이다. 23년 알루미늄 사업부는 매출액 1,015억원(YoY -15.9%), 영업이익 95억원(YoY +10.5%, OPM 9.4%)을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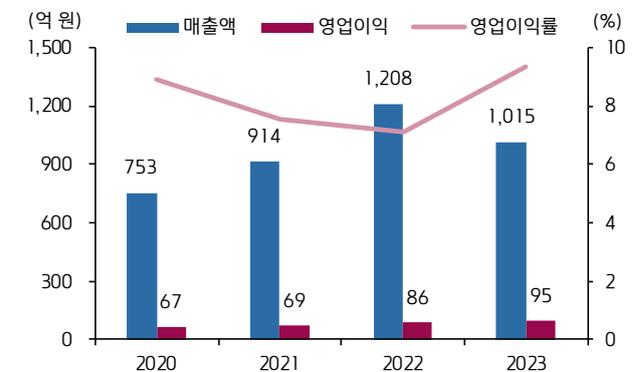
울트라커패시터 사업부는 매출액 356억원(YoY -13.8%), 영업이익 40억원(YoY -27.3%)을 기록했다. 높아진 금리 레벨 등 비우호적인 대외 환경으로 인해, UC 수요가 감소하며 역성장하였다. 다만, 대형화 및 모듈화를 통한 ASP 상승과 이익률 개선 추세는 지속되었으며, 향후 고부가 대형 셀, 모듈 비중 증가와 모듈에서 더 확장된 시스템 형태의 제품 공급을 통한 실적 성장을 기대한다.

LS머트리얼즈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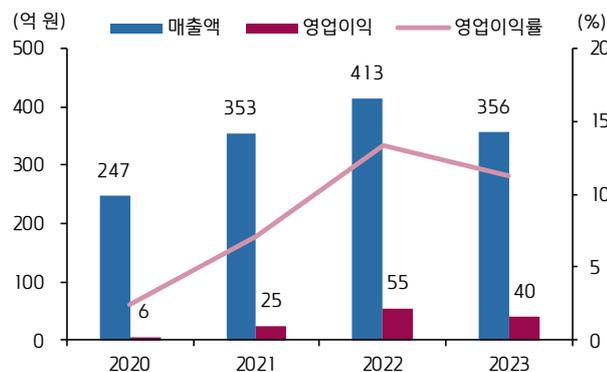
자료: LS머트리얼즈,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알루미늄 사업부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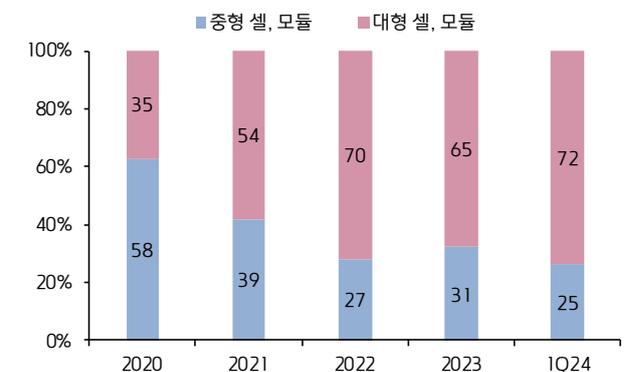
자료: LS머트리얼즈,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울트라커패시터 사업부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자료: LS머트리얼즈,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울트라커패시터 사이즈별 매출액 비중



자료: LS머트리얼즈,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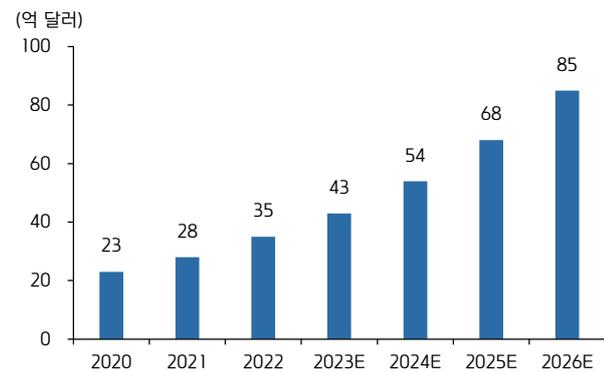
울트라커패시터 산업

울트라커패시터(이하 UC)는 일반적으로 배터리와 기능 및 역할이 유사하다. 다만, 세부적인 성능 면에서 각자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현재 UC는 배터리를 보조하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일부 영역에서 배터리를 대체하고 있다. 배터리 대비 UC의 가장 큰 장점은 충전 가능 횟수가 많고(10~100만 회) 제품 수명이 길어(10~15년), 교체 주기가 길고 유지보수 횟수 및 비용이 감소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초기 도입 비용은 배터리보다 높지만, TCO(총소유비용) 측면에서는 일정 수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등에 배터리 부하를 완화시키기 위해 UC를 함께 탑재하기도 하며, 풍력발전기 피치컨트롤 등의 영역에서는 배터리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UC가 채택되는 산업군은 크게 1)전력 발전 및 송배전, 2)자동차 및 교통, 3)일반 산업군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현재 동사의 UC가 채택되는 대표적인 제품군으로는 풍력발전기 피치컨트롤,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AGV(무인운송차량) 등이 있으며, 차량 보조 전원 장치 등으로도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력망 고도화 수요와 함께, 향후 관련 영역에서의 UC 사용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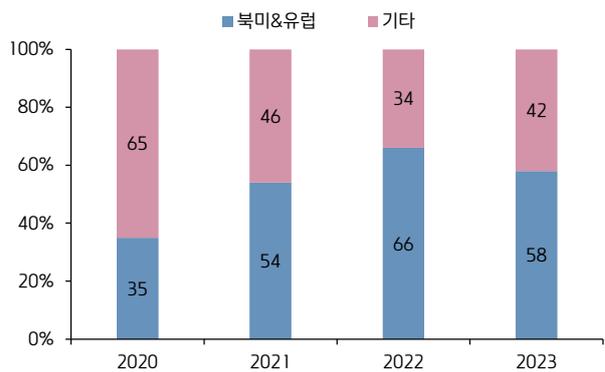
울트라커패시터 주요 생산 업체로는 Skeleton Technology, LICAP, UCAP Power(Maxwell 인수), 비나텍 등이 있으며, 이외 다수의 중국 업체들도 시장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생산 업체 수가 적지 않고 제품 간 차별화 요소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산업 내 경쟁 강도는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2023년 동사 울트라커패시터 사업부 매출액은 356억원이었으며, 23년 UC 시장 규모 추정치를 통해 산출한 동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약 0.7% 수준이다. 동사는 해외 시장 중에서도 북미와 유럽 시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23년 기준 북미&유럽 향 매출 비중은 58% 수준이었다. 향후 북미와 유럽 시장 내에서의 풍력 발전 설치량 확대, 공장 및 물류 인프라 등 산업 전반의 UC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 기대한다.

글로벌 울트라커패시터 시장 규모



자료: Starview Research, LS머트리얼즈,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북미&유럽 지역 매출 비중 추이



자료: LS머트리얼즈,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풍력발전기
피치 컨트롤 전원

울트라커패시터의 주요 사용처 중 하나는 풍력발전기 피치컨트롤이다. 피치컨트롤은 바람의 방향과 속도에 맞춰 블레이드의 각도 등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유압식 또는 납축 배터리 기반으로 구동되었지만, 빈번한 유지보수의 필요성과 짧은 배터리 교체 주기 등의 단점으로 인해, 수명이 길고 안정성이 높은 UC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실제로, 풍력 터빈 가동 중단 시간 중 약 20~25%가 피치 시스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더불어, 풍력 타워와 블레이드의 대형화 및 해상 풍력 단지의 확대 등 물리적, 지리적으로 유지 보수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 역시, UC 채택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지금까지 UC 기반의 피치컨트롤을 탑재한 풍력발전기 비중은 약 30%를 상회하며, 최근 신규로 건설되는 풍력발전기 중 약 70% 정도가 UC를 채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풍력발전기 대당 발전 용량과 블레이드 크기가 함께 커짐에 따라, 피치 컨트롤에 탑재되는 UC의 용량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풍력발전기 시장에서 UC의 채택률과 함께 대형화 기초 역시 가속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북미와 유럽 지역의 풍력 발전 투자 규모 확대와 함께, 동사의 울트라커패시터 실적 역시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신규 수요
전력 그리드

UC의 신규 수요처로 각광받는 분야 중 하나는 전력 그리드 산업이다. 관련해서 UC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함께 ESS에 탑재(하이브리드 ESS)되어 초과 전력을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력망 인프라 곳곳에서 전력 품질을 유지하고 그리드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글로벌 전역에서 기존 전력망 노후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확산으로 인해, 전력 그리드 투자 규모는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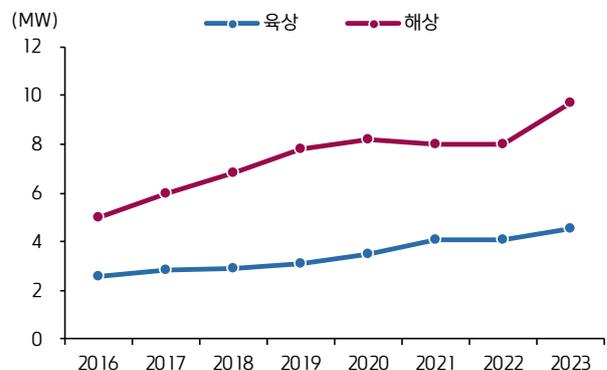
동사 역시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품을 개발하여 올해 5월에 출시하였다. 해당 제품은 모듈 형태 뿐만 아니라 모듈들을 결합한 시스템 형태로도 시장에 대응할 예정이며, 기존 제품보다 평가와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잠재 고객사들과 제품 공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계약 체결 및 매출 인식이 시작될 전망이다. 관련 프로젝트 규모가 건당 수십 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향후 울트라커패시터 사업부의 매출 확대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

유럽 지역 신규 풍력 발전 설치량 전망



자료: WindEurop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풍력발전기 파워(용량) 추이



자료: WindEurop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전력 그리드 투자 규모 전망



자료: RystadEnerg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신제품: 울트라캐패시터 시스템



자료: LS머트리얼즈,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알루미늄 사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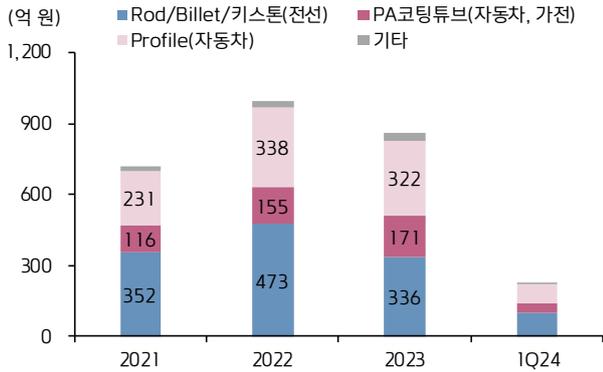
알루미늄 사업부는 현대차그룹 독점 공급, LS전선형 Captive 매출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 전망한다. 현대차그룹에 PA12코팅튜브, ABS/ESC Pump Housing 블록 등을 독점 공급 중이며, 22년 기준 관련 매출 비중은 29% 수준이었다. 23년에는 고부가 자동차용 제품 비중이 더욱 상승하며, 알루미늄 사업부 전체 매출액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익률 상승에 기여하였다. 그룹사형 Captive 매출 비중은 22년 기준 약 16%였는데, 올해부터는 전선 업체들의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동사의 전선형 제품 매출 역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Q24 알루미늄 사업부 매출액은 +14%YoY 성장했는데, 같은 기간 전선형 제품 매출액은 약 +40%YoY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알루미늄 사업부에서 기대되는 또 다른 요소는 제품 판가의 회복이다. LME 알루미늄 시세와 제품 판가가 연동되어 움직이기에, 23년에는 20% 이상의 판가 하락이 반영되었다. 올해 3월 이후부터 LME 알루미늄 시세가 반등하여 현재는 전년 가격 대비 20% 정도 높아져 있는 만큼, 추후 제품 판가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

HAIM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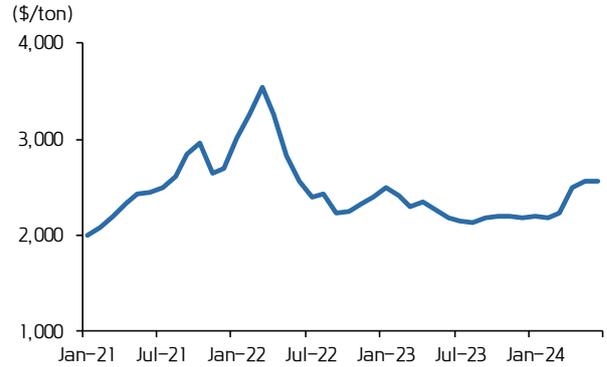
동사는 23년 11월 오스트리아 알루미늄 압출 기업 HAI와 함께 JV(HAIMK)를 설립하였으며, 675억원을 투자하여 지분율 66%를 확보하였다. HAIMK에서는 HAI가 보유한 압출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EV 배터리 시스템 부품들을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 시설은 올해 4월부터 구미에 건설 중이며, 본격적인 매출 발생 시점은 1H25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현대차그룹이 요구하는 압출재 품질을 충족시키는 다른 국내 기업이 없다는 점에서, HAIMK에서 관련 품목들을 독점 공급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사가 제시한 2027년 HAIMK 예상 매출액 규모는 2,000억원이다.

알루미늄 사업부 제품별 매출액



자료: LS머트리얼즈,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알루미늄 LME 가격 추이



자료: KOMIS,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HAIMK 양산 예정 제품 라인업

오스트리아 소재 세계적인 알루미늄 제조기업

Global No.1 전기차 경량화 높은 강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소재-부품 기업

LS 브랜드 파워 준비된 국내 생산 역량

EV Battery System

EV Side Sill

외부 충격 보호, 강량화를 통한 EV 주행거리 향상

EV Battery Bottom Tray

Battery에서 발생하는 열 외부 배출, 평탄도 이슈 해소

Crash Box

충돌 에너지의 자체 전달 방지, 우수한 Crash 특성

자료: LS머트리얼즈,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억 원)

12월 결산, IFRS 연결	2021	2022	2023	2024E	2025E
매출액	427	1,620	1,369	1,513	1,897
매출원가	360	1,379	1,133	1,268	1,562
매출총이익	67	241	236	245	335
판매비	41	96	100	104	114
영업이익	25	145	136	141	221
EBITDA	46	193	191	233	391
영업외손익	0	-38	16	6	14
이자수익	0	9	19	10	12
이자비용	3	8	15	20	12
외환관련이익	5	25	12	15	15
외환관련손실	2	39	12	10	10
종속 및 관계기업손익	0	0	0	0	0
기타	0	-25	12	11	9
법인세차감전이익	25	107	152	147	235
법인세비용	5	22	30	32	52
계속사업손익	20	84	122	115	184
당기순이익	20	84	122	115	184
지배주주순이익	20	84	122	114	183
증감율 및 수익성 (%)					
매출액 증감율	NA	279.4	-15.5	10.5	25.4
영업이익 증감율	NA	480.0	-6.2	3.7	56.7
EBITDA 증감율	NA	319.6	-1.0	22.0	67.8
지배주주순이익 증감율	NA	320.0	45.2	-6.6	60.5
EPS 증감율	NA	-21.5	30.1	-21.2	60.2
매출총이익율(%)	15.7	14.9	17.2	16.2	17.7
영업이익률(%)	5.9	9.0	9.9	9.3	11.6
EBITDA Margin(%)	10.8	11.9	14.0	15.4	20.6
지배주주순이익률(%)	4.7	5.2	8.9	7.5	9.6

현금흐름표

(단위: 억 원)

12월 결산, IFRS 연결	2021	2022	2023	2024E	2025E
영업활동 현금흐름	56	20	69	140	204
당기순이익	20	84	122	115	184
비현금항목의 가감	39	98	72	87	177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8	42	48	40	132
무형자산감가상각비	3	7	7	51	39
지분법평가손익	0	0	0	0	0
기타	18	49	17	-4	6
영업활동자산부채증감	2	-138	-105	-21	-105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감소	-36	-51	-71	-33	-89
재고자산의감소	-29	1	-22	-3	-65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증가	35	-45	23	19	68
기타	32	-43	-35	-4	-19
기타현금흐름	-5	-24	-20	-41	-52
투자활동 현금흐름	-25	-149	-178	-840	-71
유형자산의 취득	-40	-61	-183	-800	-50
유형자산의 처분	0	0	2	0	0
무형자산의 순취득	-9	-4	-185	0	0
투자자산의감소(증가)	-3	-2	0	0	0
단기금융자산의감소(증가)	-109	-81	190	-38	-19
기타	136	-1	-2	-2	-2
재무활동 현금흐름	130	137	1,142	54	-124
차입금의 증가(감소)	21	0	237	79	-100
자본금, 자본잉여금의 증가(감소)	120	160	726	0	0
자기주식처분(취득)	0	0	0	0	0
배당금지급	0	-11	-13	-15	-14
기타	-11	-12	192	-10	-10
기타현금흐름	0	0	-5	52	53.90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순증가	161	8	1,027	-594	63
기초현금 및 현금성자산	0	161	169	1,196	602
기말현금 및 현금성자산	161	169	1,196	602	664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재무상태표

(단위: 억 원)

12월 결산, IFRS 연결	2021	2022	2023	2024E	2025E
유동자산	711	837	1,786	1,271	1,511
현금 및 현금성자산	161	169	1,196	602	664
단기금융자산	109	190	0	38	57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83	232	317	350	439
재고자산	235	231	254	257	322
기타유동자산	23	15	19	24	29
비유동자산	596	640	876	1,584	1,464
투자자산	3	5	5	5	5
유형자산	432	478	626	1,386	1,304
무형자산	29	28	206	155	116
기타비유동자산	132	129	39	38	39
자산총계	1,307	1,477	2,662	2,856	2,975
유동부채	429	376	620	718	686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41	297	317	335	403
단기금융부채	12	15	271	350	250
기타유동부채	76	64	32	33	33
비유동부채	122	110	11	11	11
장기금융부채	120	108	8	8	8
기타비유동부채	2	2	3	3	3
부채총계	551	486	631	729	697
지배지분	756	991	1,805	1,900	2,050
자본금	238	264	338	338	338
자본잉여금	499	633	1,269	1,269	1,269
기타자본	0	0	0	0	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0	0	-5	-10
이익잉여금	19	94	198	298	454
비지배지분	0	0	226	226	227
자본총계	756	991	2,031	2,126	2,278
투자지표					
12월 결산, IFRS 연결	2021	2022	2023	2024E	2025E
주당지표(원)					
EPS	209	164	214	168	270
BPS	1,586	1,877	2,668	2,809	3,031
CFPS	610	355	341	299	533
DPS	0	45	22	20	40
주가배수(배)					
PER	0.0	0.0	207.4	141.6	88.4
PER(최고)	0.0	0.0	240.9		
PER(최저)	0.0	0.0	93.1		
PBR	0.00	0.00	16.62	8.49	7.87
PBR(최고)	0.00	0.00	19.30		
PBR(최저)	0.00	0.00	7.46		
PSR	0.00	0.00	18.42	10.66	8.51
PCFR	0.0	0.0	130.1	79.9	44.7
EV/EBITDA			153.4	69.1	40.6
주요비율(%)					
배당성향(% , 보통주, 현금)	0.0	28.2	12.2	11.8	14.7
배당수익률(% , 보통주, 현금)			0.0	0.1	0.2
ROA	1.5	6.0	5.9	4.2	6.3
ROE	2.7	9.6	8.7	6.2	9.2
ROIC	2.3	16.5	12.2	7.5	9.5
매출채권회전율	4.7	7.8	5.0	4.5	4.8
재고자산회전율	3.6	7.0	5.7	5.9	6.5
부채비율	72.9	49.0	31.1	34.3	30.6
순차입금비율	-18.3	-23.8	-45.2	-13.3	-20.3
이자보상배율	7.8	18.3	8.9	7.2	17.8
총차입금	132	123	279	358	258
순차입금	-138	-236	-917	-282	-463
NOPLAT	46	193	191	233	391
FCF	-12	-43	-302	-619	188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25일 현재 'LS머트리얼즈'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LS머트리얼즈는 2023년 12월 12일 당사가 주관회사로 코스닥에 상장시킨 법인입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기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 +20% 이상 주가 상승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10~+20% 주가 상승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10~-10% 주가 변동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10~-20% 주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하 주가 하락 예상

업종	적용기준(6개월)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10~-10% 변동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23/04/01~2024/03/31)

매수	중립	매도
95.03%	4.97%	0.00%